

# 무관심해서 몰랐던 자연을... 배우다

서울 문일고등학교

일 시 - 2007년 6월 7일 (목)  
 장 소 - 경기도 양평 신륵리 한그루농학회 단체의 숲  
 활동목표 - 83,000여종의 수질 식물자원의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위한 탐방  
 활동내용 - 수생식물원, 희귀 자생식물 생태원 등 탐방,  
 식물해설 듣기 및 조별 자연놀이체험

기말고사 사이의 꿀맛 같은 놀토, 곧 있으면 기말고사가 다가오니 이 날이 아니고서는 당분간은 맘 편히 놀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지난 6월 9일은 날씨가 좋기도 환상이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을 것이고,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싶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34명의 학생들은 자연과의 하루를 선택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 용인한택식물원에서의 하루를 동행해보았다.



## 1. 숲은 '놀이터' 다 - 문일고 푸른숲 선도원

“야! 이 꽃은 와야! 막 반말해.” 전망대로 올라가면서 한 친구가 꽃 이름표를 보고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 친구가 가리킨 곳에는 ‘너도바람꽃’이 피어 있었다.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는 ‘애기얇은부채’나 이름도 영웅스러운 ‘썩사인수퍼맨’ 그리고 그늘진 숲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핀 ‘금남화’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저마다의 단성과 함께 개성강한 감상을 쏟아내었다. “선생님, 이것 보세요. 이건 방수가 돼요.”

수련을 놀러보던 학생들이 신기한 듯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어떤 학생은 이것으로 옷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이렇게 총 83,000여 종, 730여만 본의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종합식물원인 한택식물원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다양한 식물들과 조우하고 있었다. “숲은 지구가 만든 최고의 작품!” 재흥이가 의기양양하게 멋진 말을 해내자 저마다 여러 말들을 토해내느라 한동안 숲이 들썩였다. 숲은 도시의 피난처라고 말한 승건이도, 숲은 물감이라며 문학적인 말을 건넨 형신이도 또 숲은 산소통이며, 친구라고 말한 찬이도 다 하나의 숲으로 보였다. “이제 학교에 가면 나무들을 잘 살펴볼 것 같아요.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도 자세히 볼 거구요. 헤헤헤.” 숲에서의 하루로 아이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호주 온실에서 본 ‘바오밥’ 나무와 아프리카 온실에서 본 ‘알로에’ 나무 그리고 보라색이 예쁜 ‘베로니카’나 이름만으로 사춘기 소년들을 설레게 한 ‘키스벨리스’ 등을 학생들은 아마 한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노원철 선생님)

## 2. 숲은 ‘생물책’이다 - 노원철 선생님 인터뷰

“특히나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입니다. 도시에서 자라 아이들이 ‘무궁화’도 모르니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현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자연과 접하며 생태계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며 그는 주변에 있는 식물들에게 무관심을 떠나 무개념적인 상태에 있는 도시 아이들이 특히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래서 ‘푸른숲선도원 활동’ 같은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요즘 화분에 물주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숲과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가 전체 규모 20여만 평에 36개의 테마 정원이 조성된 동원과 주요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 증식 포지 및 식물연구소를 두고 있는 서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택식물원을 택한 이유도 다양한 식물자원들을 학생들이 보고, 그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숲은 참 좋은 생물책이에요. 허허허.”

조별로 활동하며 각자 식물 이름을 10개씩 아는 것이 이날 활동의 전부였지만, 그는 억지로 목표를 주고 수업처럼 딱딱하게 주입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것이라며 이런 활동들이 자연을 이해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활동 때에는 아마 더 나아지겠죠.”

숲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을 야생화 책 한 권과 수업 때 쓸 사진을 찍느라 분주한 그의 모습에서 다음 번 수업도 틀림없이 오늘 만큼 좋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임준홍 선생님〉

### 3. 숲은 '나'이다 - 임준홍 선생님 인터뷰

“올라오는데 보니까 ‘동자꽃’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하나 그 꽃에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어 참 쓸쓸했습니다.” 산이 좋아 산을 찾다 점차 자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마다 노원철 선생님과 함께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산악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악회의 ‘장’부터 마인드를 바꾸면 숲은 금방이라도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더 빨리 확실하게 숲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아마추어 산악인들을 위한 교육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숲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느 한 쪽만을 위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숲과 사람은 공존해야하죠.”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도 숲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교육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제 이름이 숲입니다. 허허허.” ‘수풀 림(林)에 봄 춘(春), 흥할 흥(興) 자를 쓰니 하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물아일체(物我一體)’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듯했다. 숲과 동일시된 ‘자신’을 생각하면서 웃는 그가 초록으로 물든 듯 숲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보였다고 확신했다.

(글: 사진/고선희(푸른숲선도원 전문기자))



### 6월 활동학교 주요 내용

학교명	일시	장소	내용
금모래초등학교	2007.06.09	서울숲	서울숲 생태교육 및 숲 속 그리기 대회
문일고등학교	2007.06.09	용인한택식물원	수생식물원, 희귀 자생식물 생태원 등 탐방, 식물해설 듣기 및 조별 자연놀이체험
광주서초등학교	2007.06.09	무등산생태공원	무등산 숲 생태 교육 및 숲 체험
서울상계초등학교	2007.06.14	국립수목원	수목원 내 생태 교육 및 숲 체험
각화초등학교	2007.06.19	무등산생태공원	숲의 관찰을 통한 숲 이해
	2007.06.24	하동솔밭과 섬진강변	숲의 기능과 강물과의 관계 탐구
순천전자고등학교	2007.06.23	국립낙안민속휴양림	국립낙안민속휴양림 인공 숲 보호 및 숲 가꾸기 활동, 숲 생태 교육 및 숲 가꾸기 체험등
창원신월초등학교	2007.06.23	반성 수목원 및 반성 자연휴양림	숲 생태 교육 및 숲 체험, 숲 속 놀이
강원강포초등학교	2007.06.28	북주산 휴양림	숲 생태 탐사 및 환경보호 활동
경북서선초등학교	2007.06.29	대구수목원	수목원관람 및 숲 체험